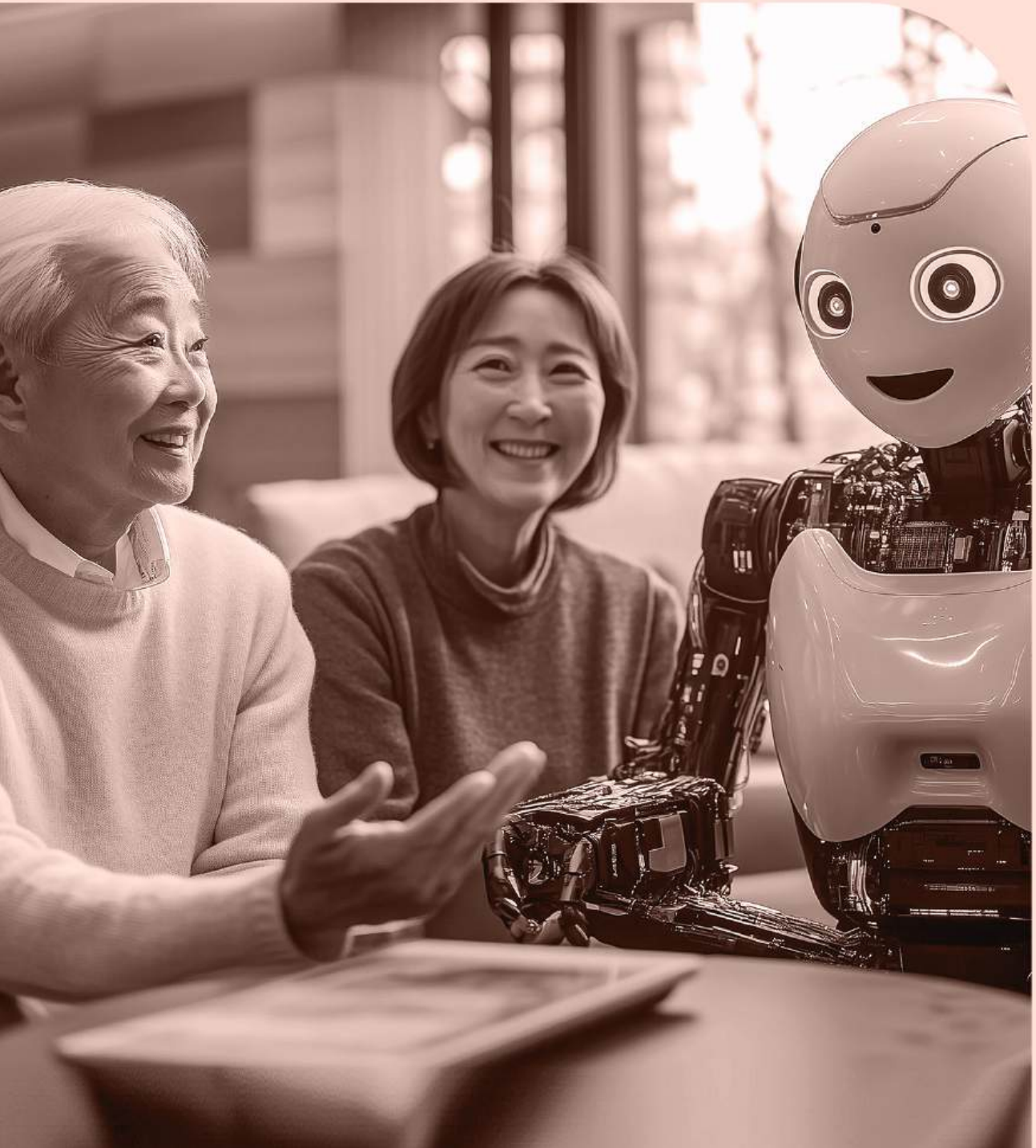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Vol.16



0.75명과 20.3%, 그리고 46.7세!!! 2024년 말 출산율, 2025년 연말 예상 고령화 비율과 중위연령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출산율이 2023년 대비 0.3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매년 약 1.0%p 수준 내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초고령사회는 돌아간다고 피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로 구성한 '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2025년 3월 11일 발표했습니다. 3대 과제는 ① Age-Tech 기술투자 확대, ②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③ 초기수요 창출입니다. 3대 과제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및 기반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기반한 자생적 산업이라기 보다 복지 개념이 반영된 국가 인프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전 세계적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고령인구 증가! 빠른 성장과 발전으로 높은 기술 수용성 견비와 지속적 순 자산액 증가로 대외 활동 욕구가 높아지는 액티브 시니어! 이런 국내외 환경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 자료를 기초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Age-Tech 기술 투자 확대

첫째, 'Age-Tech 기술 투자 확대'입니다. 'Age-Tech' 주요 수요층은 고령자이며,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 웨어러블 · 로봇틱스 ·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Age-Tech의 주요 범위입니다. Age-Tech가 확산하는 데에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의 기여가 큼니다. 정년퇴직에 갓 진입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달리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합니다. 아울러, 가족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대외 활동 욕구가 그 어느 세대보다 높은 것도 눈여겨볼 만한 특징입니다. 경제력은 '돌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가장 부유한 세대이며, 노년에 대한 개념도 '위기'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라는 의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려는 여유 있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겼던 기존의 고령자와 달리 숫자적 잣대의 '노인'은 거부하면서 아직 한창이라는 '젊음'의 단어를 스스로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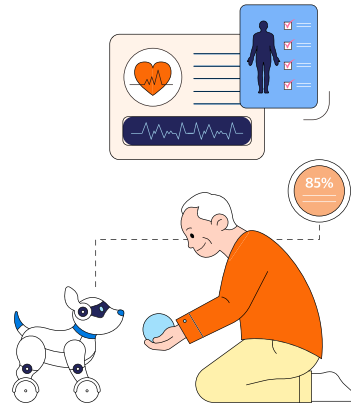
즉,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산 수준은 10여 년 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 규모는 30여 년 전보다 약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중해서 분석하고 집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 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바로 '자아 챙김'입니다. Age-Tech는 2025 CES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애플, 소프트뱅크, 일라이릴리 등 다국적 기업들은 Age-Tech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의 Age-Tech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수준이지만, 투자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Age-Tech 5대 분야(AI · 돌봄 로봇,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웨어러블,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R&D(약 3,900억원 추산)와 3천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ge-Tech 기업 육성의 마중물 조성을 위한 바이오 투자펀드('25년 500억 원), 사회서비스 투자펀드(現 215억 원)를 적극 활용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ge-Tech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기술	구분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모델 및 응용 SW/서비스 *고령자용 AI 케어콜 서비스
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 *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IoT 제품 및 수집 데이터 기반의 SW/서비스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 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 보행보조 웨어러블, AI 보청기 등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
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 *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요양원 로봇 대여·관리
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항노화 · 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

규제 완화 및 실증 인프라 확대



둘째, '규제 완화 및 실증 인프라 확대'입니다. 실버 경제, 실버산업, 실버시장, 고령 친화 산업, 은발경제(銀發經濟)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시니어 비즈니스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이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비즈니스 정책 현주소는 복지와 재정지원의 1차원적 수준입니다. 고령층 돌봄서비스 사업 등 돌봄 인력 파견 내용 위주의 노동집약적이고 공공 재원에 의존하는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거버넌스는 보이지 않는 허들이 되어 시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상호 간의 벽을 허물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이뤄질 때 시장 성장만큼 진입장벽도 낮아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입안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실버시장 1위 국가답게 '국립노화연구소(NIA, 1974년 설립)'를 중심으로 Age-Tech 관련 R&D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IA의 최근 주요 R&D 영역으로는 건강 노화, 치매, 장수 요인 분석 등 AI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약 4천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필두로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 네트워킹과 협업 등 다양한 Age-Te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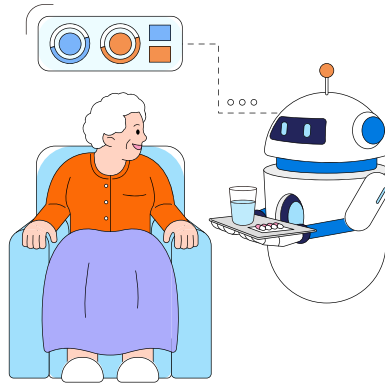
● 일본은 2030년도 가계소비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고령인구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답게 고령인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년퇴직(60세) 이후 재고용 의무를 65세까지 연장하였으며, 금년도에 70세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뿐 아니라 돌봄 로봇과 재생의료에도 정부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9대 분야(이승, 이동, 배설, 입욕,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간호 업무, 기능훈련, 식사와 영양 관리, 치매 생활지원과 치매 케어) 로봇 돌봄 기기를 개발하였으며, 개인이 돌봄 로봇 도입할 때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는 고령자 일상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혁신하고 있습니다. 노화 억제용 품목은 허가 이전이라도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주요 재생의료 분야로는 관철 · 골 척추 협착 · 골다공증의 골격계, 파킨슨 · 치매 · 뇌혈관 질환의 신경계, 심혈관 등입니다.

● 다음으로는 고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국입니다. 2023년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4%로 약 2억 1,700만 명이었습니다.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2~1976년)가 고령층에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기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실버세대의 소비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30년도 고령층 구매력은 26조 7천억 위안(5,340조 원)으로 예상될 만큼 규모가 큼니다. 이러한 고령층 구매력과 잠재력을 적극 국내 경기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10월 '노인 돌봄에 필요한 스마트 제품 ·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월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 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실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중국이 실버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은 노인의 일상과 관련된 전 분야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노인용품, 건강 관련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보조기구, 항노화와 같은 미용 부문, 유연신탁과 맞춤형 자산관리 등 노인 금융상품, 여행 서비스 등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시니어 비즈니스 중점 사항 등 정책적 전략 방향은 조만간 우리나라도 맞닥뜨릴 미래이기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에 발표한 'Age-Tech 기반 실버 정책 육성 전략'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형성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자처 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장이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기반인 제조업(2023년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 세계 6위)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면모를 보이는 IT(2024년 디지털 경쟁 순위 세계 6위)를 접목할 때 Age-Tech 산업은 빠른 성장과 함께 확장성을 보일 겁니다. 국내 소비뿐 아니라 글로벌 소비로 이어질 때 21세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수요 창출



Age-Tech는 크게 '기술 유형별 분류'와 '활용 목적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형별 분야'는 삼성글로벌리서치를 인용하면 헬스케어, 웰니스, 주거, 생활, 돌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노인성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초 의료 분야'와 누구나 갈망하는 젊음을 유지하는 '항노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홈케어', '웨어러블과 보조기기, 돌봄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영역들은 기술 융합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활용 목적별'로는 보건 산업진흥원 자료를 인용하면 고령자 자립생활 기술(AIP Age-Tech)', '고령자 돌봄 기술(Care Age-Tech)', '고령자 기술 수용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Age-Tech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로는 건강모니터링과 웰니스, 주거 일상생활, 돌봄 기술입니다. '장수(longevity)'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자 발전된 정보 의료 기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병(good health)'입니다. 건강은 유리공과 같아서 깨지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두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모니터링과 웰니스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67%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고령자 주거 일상생활과 Age-Tech 융복합은 피할 수 없는 영역임이 틀림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독고 사는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이와 돌봄은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맞물려 돌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 사항입니다. 대안은 돌봄 로봇과 같은 돌봄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Age-Tech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강한 제조업과 세계적 수준의 IT를 접목한 '제품과 기술' 중심의 Age-Tech를 육성하여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맞춤형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여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하는 체계적 지원을 담은 이번 전략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5. 3.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참고자료 바로가기



박창동

KMA 시니어랩 전문위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KMA 시니어랩

초고령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시니어 대상 경력개발사업, 시니어 대상 정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